

좋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하십시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좋지만, 어쩌면 조금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우리는 종종 두가지의 악 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도 여전히 선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변명처럼 들립니다. “내가 무엇이 진짜 선인지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선을 행할 텐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과 우리가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또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타인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선한지 아닌지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 것을 자동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메리 워드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능숙함을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속박, 나쁜 습관, 게으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선하다고 인식한 일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채워지고, 나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내 삶은 의미와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워드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준비와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선한 일은 잘, 주의 깊게, 완전히 행해야 합니다.

메리 워드에 따르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맡겨진 일을 신중하게 해내는 것,

우리 곁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필요를 알아차리고 사랑과 상상력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적어도 조금씩,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일에 집중하고, 덜 선하거나 나쁜 일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활기찬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